

부산연극사자료집(1)

Busan A dramatic

김문홍 · 정봉석 공저



부산연극사 자료집(1)

김문홍 · 정봉석 공저

Busan A dramatic

부산연극사 자료집(1)

2006년 9월 15일 인쇄
2006년 9월 20일 발행

발행인 김동석

주 간 손병태, 변미선

편집장 강성우

발행처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01-06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31 전화 • 051)645-3759

펴낸곳 도서출판 해성

600-01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7-19번지 성동빌딩 3층

출판등록 • 1989년 4월 6일 제과-1-117호

전화 • 051)441-0485 / 전송 • 051)465-0485

<http://www.book0485.com> / E-mail:book0485@choilhan.net

부산연극협회©2006 printed in Busan Korea

ISBN 89-7921-088-4

* 이 책은 2006년도 부산광역시 문예진흥기금을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부산연극협회와는 무관하며, 김문홍 · 정봉석의 연구관련자료를 모아 발간되었습니다.

*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부산의 연극 역사는 김동규 선생이 정리하여 펴낸(1997.12.5/펴냄)바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정리 되어야 할 『부산연극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발간을 위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작년 이맘 때였다.

학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알아야만 될 부산 현장연극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과거는 분명 현재의 밑거름이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미래의 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 될 것이며, 그 속에서는 '발전'이라는 단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극사 발간은, 부산연극사의 흐름과 부산창작회곡의 60년사, 83년에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전국연극제의 산실인 부산연극제의 역사를 되짚어 봄으로, 현재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의 부산연극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함께 읽고 있는 부산의 연극인들은 후세 자랑스러운 연극유산을 남겨 주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연극이라는 예술의 특성상 혼자만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하고, 같은 지향점을 가진 동반자로서 손잡고 나아가야 가능할 것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부산연극사』는 경비조달과 작업인력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준비되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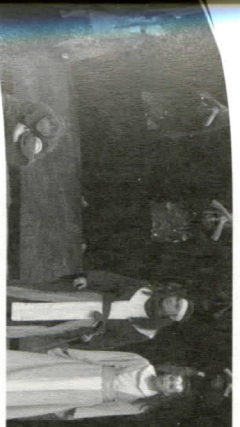
연구와 자료가 미비한 조건에서 간행되었고, 자료는 수집 되었으나 정리가 되지 않아 신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차후 자료의 명확한 수집, 보완을 통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자료를 정리 편집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문홍 선생, 정봉석 선생 또한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신경을 써준 해성출판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이 부산연극의 길잡이로서, 부족하나마 부산연극의 줄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6. 가을

(사)한국연구협회 부산광역시지회장 김 동 석



부산연극사 / 정봉석 15

부산연극비평사 / 정봉석 75

이주홍 희곡의 정체성과
부산연극과의 접면 양상 연구 / 정봉석 95

부산 지역극작가의
창작희곡 60년사 / 김문홍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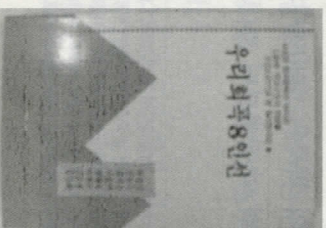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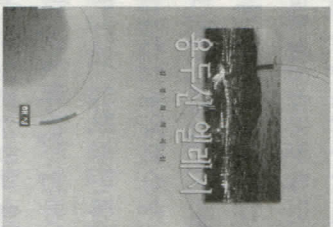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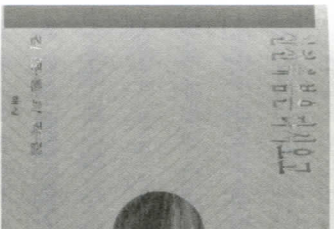
부산연극계 24년사 / 김문홍 199

부록 · 부산연극협회소속 극단의 공연보 271

부산 지역 극작가의 창작희곡 60년사

- 김문향

Busan A dramatic



현재까지의 부산지역 작가들의 창작 회곡에 대한 회곡문학적 접근과 분석, 그리고 공연된 회곡에 대한 비평문과 그러한 작품들에 대한 내용 및 형식적 접근, 타 지역 작가들로 부산지역에서 공연된 창작 회곡 목록의 정리는 후일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부산의 연극사에 대한 자료 관심과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지만, 부산의 회곡사에 대한 정리는 부산의 각 신문사의 연감에 해마다 단편적으로 실리고 있을뿐, 어느 누구 한 사람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부산회곡사의 황무지에 작은 씨앗 한 톨을 심는 정도의 의미는 있으리라고 자위해 본다.

이상의 글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특히, 김동규 교수의 『부산연극사 자료집』제1집(1994)은 이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997년 8월)

김동규, 『부산연극사 자료집』제1집(경성대학교 공연예술연구소, 1994), 전승환, 『시대』에 따른 우리 演劇의 흐름, 『白鱗』제22집(수산대학교 교지, 1982), 김문홍, 「지역 創作劇 활성화를 위한 전략」, 『회곡과 공연비평』(태화사, 1997), 민병욱, 『현대회곡론』(삼영사, 1997), 김문홍의 창작회곡집 3권, 김경희의 창작회곡집 3권, 이윤택의 회곡집 3권, 이현대의 회곡집 1권, 허창길의 회곡집 2권, 허은, 『부산연극 그 발자취』, 『토박이』 제1집(동보서적, 1984. 봄호), 극단 「전위무대」를 비롯한 각 극단의 공연보, 부산지역 각 극단 대표의 자료 제공, 박두석, 서국영, 전승환, 김문홍, 허영길 등 부산지역 원로 연극인들과 중견 연극인들의 자료 제공 및 증언. 기타 참고자료 다수.

부산연극제 24년사

- 김문홍

Busan A dramatic

부산연극제 24년사 - 1983년~2006년

1. 여는 글

부산연극제가 2006년 올해로 24해 째를 맞았다. 1983년 제1회 전국지방연극제²⁾가 부산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부산연극제는 전국연극제에 참가할 부산시 대표 극단의 작품을 선별하는 일종의 예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부산 연극의 질적인 수준을 기증하고 극단끼리의 교류와 화합을 전제로 한 축제 형식보다는, 부산시 대표 극단과 작품을 선별한다는 관 주도 형식의 경연대회라는 성격이 매우 짙었다.

부산연극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부산연극제와 연극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다. 부산연극제가 개최되기 전까지만 해도 부산지역의 극작가는 한두 명에 불과³⁾했을 정도의 불모지였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은 극작가의 수가 몇 배로 늘어나 있을 정도로 지역 작가의 창작기가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부산연극제를 통하여 그 동안 수많은 신인 연기자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지금

중견 연기자로 성장 발전하여 현재 부산연극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행정 당국의 재정적 지원이 영세하여 작품의 질적인 완성도가 떨어진 작품들이 참가하고, 각 극단들은 부산 지역 작가의 작품보다는 이미 검증 받은 서울 지역 작가의 작품을 선호하고, 무대 경험이 일천한 신인 연기자를 투입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양상질이 흐트러지는 등 부작용 또한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연극제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제1회 부산연극제(1983. 5. 8.~5. 17.) 시민회관(소) 4)

가. 참가 극단 및 작품 5)

- 1) 치용의 「신국」 (황석영 작, 이동재 연출)
- 2) 레퍼토리시스템의 「신국」 (황석영 작, 이기원 연출)
- 3) 현장의 「일요일의 불청객」 (이근삼 작, 송성엽 연출)
- 4) 전위무대의 「토끼와 포수」 (박조열 작, 전승환 연출)

나. 작품 현황

- 1) 창작 초연 : 한 편도 없음.

1) 김문홍 : 극작가, 연극평론가,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강사

2) 처음에는 전국 지방 연극제 라는 대회 명칭을 사용하다가, '지방'이라는 말이 '서울' 과 대비되는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 이후에 전국연극제 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3) 소설가인 황바 이주홍의 희곡이 대학의 학생극 레퍼토리로 자주 등장했으며, 최해군과 김하영 정도의 작가만이 희곡을 창작하고 있었다.

4) 1회부터 6회까지는 참가 극단 및 작품, 작품 현황, 수상 현황 등의 순으로 간략화 하였고 그 이후는 상세하게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5) 1회에서 참가 작품의 규제가 그리 심하지 않은 때문인지 치용과 레퍼토리시스템의 두 극단이 같은 작품인 「신국」을 중복 출품하고 있다.